

[大河기획/한라산 학술 대탐사 (219회)]

제2부 한라대맥을 찾아서(53)

뭇 오름을 호령하는 오름학습장

입력 : 2004. 11.05. 00:00:00



어승생악

질은 안개가 온 산을 덮고 있다. 천왕사를 출발하여 어승생악을 오르려던 계획을 수정하여 어리목광장으로 가서 어승생악을 올랐다. 그 사이 한라산과 어승생악은 안개를 걷고서 그 위용을 드러내었다. 완연한 가을날씨 속에서도 한라산에는 인간이 넘볼 수 없는 변화무쌍함이 예외없이 존재했다. 한라산정상을 비롯하여 장구목 윗세오름 민대加里 큰드레 작은드레 사제비 망체오름 등이 Y계곡을 가운데 두고 치솟아 있다.

어승생악은 오름학습장이다. 나무와 풀, 야생화, 서식동물, 분화구, 일제강점기의 토치카 등 오름내 자연적·역사적 요소들에 대해 안내판만 살피면 학습이 가능한 곳이다. 나무 계단을 밟고 오르면 나무뿔말과 여러 가지 안내게시판이 곳곳에 세워져 있다.

▲단풍에 파묻힌 아흔아홉골과 어승생악 사이의 계곡. /사진=강경민
기자 gmkang@hallailbo.co.kr

성인이면 보통 20분이면 정상에 도달할 수 있다. 오름 직경이 1968m, 둘레가 5,842m에 이룰 정도로 웅장한 산체인데 제주시에서 볼 때 한라산 서쪽 줄기하단에 우뚝 솟아있는 오름이다. 비고가 350m에 달한다.

그래서 해발 1,169m의 오름 정상에서는 조천, 제주시, 애월, 한림지역까지 한눈에 들어온다. 일제가 1945년 4월에 제주도 방비 강화를 위해 어승생악에 토치카를 구축하고 제58군사령부를 두었다. 해안선 방어를 포기하고, 한라산에 방어진지를 구축하여 지구전을 펴겠다는 구상에 따른 것이다. 오름 정상에 2개의 견고한 일본군 토치카가 30m의 거리를 두고 섬뚝하게 남아 있다. 그 토치가에서 어승생 허리부분까지 지하로 통로가 개설됐었다고 하니 그들의 전쟁행위 단면을 추측케 한다.

어승생악은 두차례에 걸친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됐다는 것이 정설이다. 정상부 주변을 볼 때는 송이분출에 의한 분화구가 뚜렷하고, 그 바깥 거대한 몸체는 1차적으로 다량의 현무암질 용암 분출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오름의 3분의 2는 흑갈색의 화산회토, 정상부의 3분의 1은 붉은색의 송이로 구성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승생오름의 기원도 재미있다. 이원진의 '탐라지'(1652)에는 오름 아래에서 임금이 타는 말(御乘馬)을 생산했던 곳이라고 해서 붙여졌다고 하는데 오름 북쪽 드넓은 공간에서 어승마가 생산된 데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지역민들이 이 오름을 어스승이라고 칭하여왔다는 데서 그 기원을 찾는 설도 있다.

어승생악 주변의 변화무쌍함은 천왕사를 목적지로 하산하는 과정에서 더욱 뚜렷하다. 오름중턱에서 동쪽을 향해 하산하는 도중에 오래된 3기의 무덤터를 만났고, 이어 조릿대를 움켜쥐며 급경사를 내려오니 선녀들이 내려올 만한 계곡에 이르렀다. 사철 물흐르는 이 계곡에는 단풍잎이 수북이 쌓여 있다. 선경(仙境)은 바로 이런 곳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아흔아홉골과 어승생악이 만나는 지점으로 치밀한 조면암이 계곡의 수로 역할을 하고 있다. 어승생악의 우람한 기운속에 적송과 단풍나무가 한껏 어우러져 있다. 그런데 이 계곡이 사람들이 찾기 힘든 위치에 있다는 사실은 하산한 후에야 깨달았다.

/특별취재팀

[전문가 리포트]오름의 리더격인 어승생악

어승생악은 제주주민들에게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오름 중의 하나이다. 이 배경에는 어승생(한밭) 수원지의 존재와 함께 임금이 타는 말(어승마)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이 이외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어승생악은 제주시 해안동(산 220-1번지)에 위치하며 어리목 광장의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뒤편에 자리잡고 있다.

어승생악은 많은 오름들 중에서도 리더격인양 늘 우람한 산체로 위엄을 자랑한다. 이에 대해서는 어승생악과 관련된 두 가지 사실만 확인해 보면 쉽게 납득할 수 있다. 어승생악의 비고(比高)는 350m로 오백나한의 389m에 이어 두 번째로 높으며, 오름의 면적도 254ha로 군산의 284ha에 이어 두 번째로 넓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한라산 정상 가까운 곳에 큰 몸집으로 자리잡고 있으면서, 아래쪽의 여러 오름을 거느리고 있는 듯한 자태 역시 리더로서의 품격을 나타내는 듯 하다.

1702년에 이형상 목사가 제작한 『탐라순력도』에는 어승생악이 '어승생(御乘生)' 또는 '어승악(御乘岳)'으로 표기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오름 이름의 역사도 꽤 오래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어승생악은 모든 탐방객들에게 최적의 자연학습장으로 권장할 만하다. 가장 먼저 권장해야 할 학습내용은 오름의 형성과정에 대한 것이다. 어승생악은 크게 2회에 걸친 분화활동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첫 번째의 분화는 오름의 허리부분까지를 만들었고 주로 조면암과 함께 검은색의 화산회(火山灰)를 분출하였다. 두 번째의 분화는 현재의 분화구에서 이루어졌는데, 주로 붉은색의 송이(scoria)를 분출하여 산체의 높이를 더했다. 오름을 오르다가 산허리 부근에서 검은색 화산회(또는 조면암)와 붉은색 송이를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다면, 어승생악

이 지니는 비밀은 다소나마 풀린 셈이다. 그리고 오름 정상에서는 화구호(火口湖)의 비밀에 대해 상상의 나라를 펴는 것도 좋은 자극제가 될 것이다.

오름 탐방에서 항상 놓칠 수 없는 공부거리는 다양한 식물이라 할 수 있다. 친절하게도, 어승생악의 등반로에는 수종에 따라 제각기 이름표를 달아놓았다. 가령 어느 오름에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때죽나무, 산딸나무, 물참나무, 단풍나무, 윤노리나무 등을 비롯하여 전문가가 아니면 이름조차 생소하게 다가오는 가막살나무, 팔배나무, 음나무, 참빗살나무, 산개벗지나무 등도 모든 탐방객들을 차별하지 않고 반갑게 맞아들인다.

어승생악 정상에서는 제주역사에 대한 공부도 가능하다. 정상 한쪽에는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토치카가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로 남아있다. 일본군들은 어승생악의 정상뿐만 아니라 산허리의 여기저기에도 진지동굴을 만들었으며, 아울러 그들은 제주도의 요새라고 생각되는 여러 오름이나 해안가에는 거의 빠짐없이 진지시설물을 설치했다. 결국, 그것들은 일본군들이 태평양전쟁 막바지에 다다르자, 제주도를 '결전 7호 작전' 지역으로 결정하면서 준비했던 결과물들이다. 한가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사실은 어승생악의 진지동굴이나 토치카를 건설하는 데도 수많은 한국인들이 동원되어 강제노역을 당했다는 점이다.

이상과 같이, 어승생악을 탐방하게 되면, 제주의 자연과 역사가 눈앞에 저절로 다가온다. 여기에다 한가지 빠지지 않는 것이 오름 정상에서 바라보는 백록담과 좌우로 길게 이어지는 오름군, 그리고 그 아래로 이어지는 Y계곡 등 빼어난 자연의 절경이다.

올 가을이 다가기 전에 어승생악을 탐방하여, 제주의 자연과 역사에 대한 학습은 물론이고 빼어난 절경을 감상해 봄은 어떠한가.

<정광중 탐사위원(제주교대 교수/인문지리분야)>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